

절망의 광야에서 피어난 꽃 ‘위로’

이사야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아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광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고난의 광야’가 아닌 ‘절망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던 때,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던 때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사야서에만 50회 이상, 그리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에는 1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 55:7)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렘 25:5)

아마도 이스라엘은 고난의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고난은 힘겨운 것인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인생에서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의미있는 시간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의 광야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소리쳤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무도한 바벨론이 치리라는 것을 믿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는 아픔의 광야를 거부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고난의 광야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절망의 광야’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는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하게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광야로. . .

고난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절망의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

했고 고난의 광야로 들어 갔습니다.

아니, 고난의 광야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에게 고난은 절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그 땅의 왕을 잘 섬기라고 말이죠. 돌아올 생각이랑 말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살라고, 결호도 하고, 자식도 낳고, 손자 손녀도 보고 살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27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 차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은 죄의 형벌의 대가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빨리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끝나기까지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절망의 시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요셉처럼 13년의 시간일수도, 누군가에게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렀던 40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4분의 1을 양을 치며 지내야 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에 들어가게 됐던 사연이 다 다르다는 것이고,

그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 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까지는 광야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고난의 광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광야’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절망의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그 곳에서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멸명과 더불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40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비록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망의 광야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들리는 회복의 메시지야 말로 광야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절망의 광야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당하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절망의 광야에서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것이며, 왜 그 자리에서 절망스러워 해야하는지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위로 회복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입니다.

재촉해서 사역의 길을 가거나, 지금 잘못했으니 회개하라는 꾸지람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보다 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위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무엇이 위로가 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 절망적인지를 아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년, 2년 혹은 3년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5년 10년 20년이 흐르는 동안 응답이 없자, 잊혀진 것은 아닌지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혹시.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캐스터 어웨이]란 영화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무인도에 표류한 채로 4년을 지내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죠.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대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해하죠.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까봐, 결국 무인도에서 배구공에 사람모양을 만들고 ‘윌슨’이라 이름붙이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영원히 혼자 잊혀진 존재가 될까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43장 1-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양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마도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절망의 광야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한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히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아야하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오스왈드 캠버스의 청년시절 에딘버러 대학에서 말씀을 전하는 허드슨 테일러에게서 받은 감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밤에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당신 자신의 신
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뜻으로 말해 주었다.
캠버스는 크리시에게 ‘지금 정말 평안해, 하나님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져,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야’라고 편지했다.
‘내려놓음’이란 신뢰의 표현이지, 고생이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 ”

아직은 절망의 광야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대해야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사야 40장 28-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
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양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
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라

여기에서 ‘양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뜻
이죠.

절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기다려도 도움이 오지 않는 절망감과 무기력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
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
입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거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양망’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 길을 내
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그러면 ‘길을 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40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주 좋은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여호와를 양망할 때 ‘대로’
가 놓입니다.

길을 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높은 곳은 낮게, 낮은 곳은 높게, 그리고 굽은 곳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광야에서 대로가 놓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인 [순종의 길]을 읽다보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챔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 ‘내어드리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어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숙련된 구조자는 곧바로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쓰면 쓸수록 모두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구하려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구조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이것, 저것을 하려고 든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적일정도로 지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

챔버스가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챔버스 역시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불안한 삶을 대하는 챔버스의 태도가 참 인상 깊습니다. 비디와 혼인한 후 사역을 위해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배 위에서,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p.278-279) 미래에 대한 챔버스의 자세는 간단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행하라.”

지금 가장 가깝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낮잠을 자는 것이다. 그는 담요를 두르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하는 챔버스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누구보다 자기의 불안한 미래를 고민하며 염려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에 파견을 가서 전쟁의 한 복판에서 사역할 때도 이런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p.367)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기를 거절한다”는 좌우명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그는 아무런 염려 없이 하루를 기쁘게 맞이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보냈다.

어떤 사람은 걱정과 염려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삶에서 걱정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챔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걱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